

“5년 만에 우승 갈증 푼다”...태극낭자들, US여자오픈 출격

한국 선수 11차례 우승...29일 김효주·유해란·고진영 등 25명 출격
코다·티미쿤·리디아 고 등 출동...사소 유카 타이틀 방어전도 관심

여자 골프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인 US여자 오픈이 이번 주 펼쳐진다.

올해 80회를 맞이한 US여자오픈은 29일(현지 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위스콘신주 에린의 에린 힐스 골프 코스(파72·6829야드)에서 개최된다.

US여자오픈은 1998년 박세리가 ‘맨발 투혼’으로 우승을 차지하며 한국 여자 골프 발전의 발판을 놓은 것을 시작으로 한국 선수가 무려 10명, 횡수로 11차례나 정상에 올라 인연이 깊은 대회다.

박세리 이후 2005년 김주연, 2008·2013년 박인비, 2009년 지은희, 2011년 유소연, 2012년 최나연, 2015년 전인지, 2017년 박성현, 2019년 이정은, 2020년 김아람이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하지만 지난해엔 27년 만에 10위 안에 단 한 명도 들지 못한 가운데 김효주와 임진희 공동 12위에 오른 것이 최고 순위였다.

여자 골프 역사상 가장 많은 상금 1200만달러(약 164억3000만원)가 걸린 올해 대회엔 전체 출전 선수 156명 중 미국(39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25명이 한국 선수로 채워졌다.

지난해엔 US여자오픈이 열리기 전까지 시즌 1

승도 올리지 못했을 정도로 전반적으로 한국 선수들의 성적이 아쉬운 상황이었으나 이번 시즌엔 다르다.

올해 2월 시즌 개막전인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스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의 김아람, 3월 포드 챔피언십 김효주, 이달 초 블랙 데저트 챔피언십에서 유해란이 3승을 합작했다.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지난달 세브론 챔피언십에선 김효주가 공동 2위, 고진영과 유해란이 공동 6위, 최혜진이 공동 9위에 오른 바 있다.

지난해 6월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양희영 이후 11개월 만의 메이저 챔피언 탄생 기대감이 커지는 시점에서 세계랭킹 톱10에 든 유해란(5위)과 김효주(7위), 고진영(10위)이 우승의 선봉에 선다.

특히 CME글로벌 포인트 2위(1052.125점), 올해의 선수 포인트 3위(59점)를 달리는 김효주의 활약이 기대를 모은다.

역대 US여자오픈 우승자로는 김아람, 이정은(1995년생), 박성현, 전인지가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양희영과 최혜진, 김세영, 윤이나, 안나란, 임진

희, 전지원, 이미향, 이일희, 이정은(1988년생), 신지은도 이번 대회에 출전한다.

이달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메이저 대회 월드 레이디스 챔피언십 살롱파스컵을 제패한 베테랑 신지애,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에서 활동하는 배소현과 황유민, 김수지, 마다숨, 노승희, 유현조도 도전장을 내밀었다.

최근 LPGA 투어에서 활약이 돋보이는 일본 선수들과의 자존심 대결도 관심 포인트다.

시즌 첫 메이저 대회 세브론 챔피언십에서 사이고 마오가 우승했고, 이번 대회 직전 열린 리비에라마야 오픈에서는 이와이 치사토가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3월 블루베이 LPGA의 다케다 리오를 포함하면 일본 선수들도 이번 시즌 LPGA 투어에서 3승을 거뒀다. 사이고가 올해의 선수 포인트에서 1위(68점)를 달리고 있고, 신인상 점수에선 1위 다케다(472점)부터 상위 4명이 모두 일본 선수일 정도로 강세를 보인다.

이번 대회 다펜딩 챔피언도 일본 선수다.

2021년과 지난해 US여자오픈을 제패해 역대 최연소(22세) 이 대회 2승 기록을 세운 사소 유카가 타이틀 방어전에 나선다.

세계랭킹 1~3위 넬리 코다(미국), 지노 티미쿤(태국), 리디아 고(뉴질랜드)를 비롯해 정상급 선수들이 모두 출전해 우승을 다툰다. /연합뉴스



김효주

17년 만의 복싱 금...광주 선수단, 전국소년체육대회 선전

배드민턴 단체전도 8년만에 금

광주 선수단이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17년 만의 복싱 금메달을 얻어냈다.

광주는 대회 마지막날 경기가 펼쳐진 27일 금메달 2개와 은메달 4개, 동메달 4개 등 총 10개의 메달을 추가했다. 복싱과 배드민턴에서 의미 있는 금메달이 나왔다.

김해학생체육관에서 열린 복싱 남자 U15 핀급 경기에서 이창욱(광주체육 3)이 배준호(서울체육 3)를 5-0으로 이기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008년 광주에서 열렸던 '제37회 전국소년체

육대회'에서 이동윤(당시 송일중 3)이 U15 밴텀급 금메달을 딴 이후 17년만의 광주 복싱 금메달이다.

배드민턴에서도 의미있는 금메달이 나왔다.

광주선발 홍수자·염유주(이상 광주체육 2), 김민·이운서(이상 광주체육 3)가 배드민턴 여자 U15 단체전 경기선발과의 대결에서 3-2 승리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017년 충남에서 개최된 제46회 대회에서 '서블록 여제' 안세영(당시 광주체육 3)이 단체전 1위를 차지한 이후 8년 만의 금메달이다.

양궁 광주선발 이경민·심예인(이하 광주동명중 2), 강수정(광주체육 3), 강선우(광주동명중 3)

는 여자 U15 단체전 경기에서 2위를 차지했다.

전남은 금메달 1개와 은메달 2개를 더했다. 금메달은 레슬링에서 나왔다. 심석무(함평중 3)는 레슬링 남자 U15 그레코로만형 92kg 경기에서 정원서(명서중 3)를 매트에 눕혀며 금메달을 따냈다.

수영 여자 U12 자유형 50m 경기에서 김루아(여수한려초 4)가 30초07로 2위에 이름을 올리며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승민(곡성복싱체육관 3)은 복싱 남자 U15 미들급 경기에서 이유준(부산체육중 3)에 0-4로 패하며 2위에 이름을 올렸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KLPGA, 이예원 2연패 vs 박현경 2연승 도전



이예원



박현경

30일 Sh수협은행 MBN 여자오픈

이예원의 2연패나, 박현경의 2연승이나.

오는 30일부터 사흘 동안 경기도 양평군 더스타 휴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리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Sh수협은행 MBN 여자오픈(총상금 10억원) 관전 포인트는 이예원과 박현경의 대결이다.

8개 대회에서 이미 3승을 따낸 이예원은 다승 부문 선두는 물론 상금랭킹과 대상 포인트, 평균타수 등 전 부문 1위를 달리는 가장 뜨거운 선수다.

더구나 Sh수협은행 MBN 여자오픈은 지난해 이예원이 우승했던 대회라 코스 공략에 누구보다 자신이 남긴다.

타이틀 방어전은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 탓에 어려웠다는 이예원은 지난달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에서 난생처음 타이틀 방어에 성공하고선 방어전에 대한 부담도 덜어냈다.

이예원은 지난 24일 E1 채리티오픈 2라운드에서 3오버파 75타를 치고 컷 탈락했다.

올해 이예원이 오버파 스코어를 건 건 처음이고 컷 탈락은 작년 10월 하이진스로 챔피언십 이후 7개월 만이다.

이예원은 데뷔 이후 컷 탈락한 게 6번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번 컷 탈락은 충격보다는 보약이 될 전망이다.

5월에 열린 4차례 대회에 모두 출전해 2차례 우승을 따낸 이예원은 특히 시즌 3번째 우승을 거둔 두산 매치플레이에서 7라운드를 뛰는 강행군을 펼쳤다.

컷 탈락 덕분에 예정에 없던 쏘맛 휴식을 취하고 체력을 충전한 이예원은 시즌 네 번째 우승과 이번 시즌 두 번째 타이틀 방어에 도전한다.

박현경은 E1 채리티오픈에서 시즌 첫 우승을 거둔 기세를 이어 2주 연속 우승을 노린다.

E1 채리티오픈 우승에 앞서 출전한 4개 대회에서 내리 톱10에 입상하는 등 상승세가 완연한 박현경은 이예원이 독주하는 다승 부문과 대상 포인트에서 최대한 격차를 좁히려겠다는 복안이다.

박현경은 그동안 예전만큼 예리한 맛이 없어 애를 태웠던 퍼팅 감각을 회복하면서 자신감도 올라온 상태다.

2019년과 2020년 두차례 이 대회에서 우승한 박민지는 대회 첫 3차례 우승을 바라보고 출사표를 냈다.

2022년 대회에서 정상에 오른 바 있는 이소영도 대회 두 번째 우승에 도전장을 냈다.

올해 우승을 신고한 홍정민, 김민선, 박보경도 시즌 2승을 노크한다.

우승 없이도 대상 포인트 5위를 달리는 고지우와 이 대회에서 성적이 좋았던 박주영, 장타 1위 이동은, 박지영 등도 눈여겨볼 선수들이다.

/연합뉴스

“좋은 성적 기록해 장애인 선수들에 희망 전하고 싶어”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 장애인 탁구 선수 선운중 1학년 김민찬

청각장애 불리함 딛고 실력 인정 받아...비장애인 국대 도전 목표

“비장애인 국가대표 선수가 돼서 장애인 선수들에게 희망 보여주고 싶어요.”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탁구 남자 U15 개인전에 출전한 김민찬(선운중 1·사진)의 다부진 각오다.

선천적 중증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김민찬은 올해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한 광주·전남 선수 중 유일한 장애인 선수다.

김민찬은 지난 25일 열린 8강 진출전에서 정준희(만경중 2)를 3-0으로 이기고 8강에 올랐으나 오세주(내동중 3)에게 패해 4강 진출에는 실패했다.

김민찬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를 따라갔던 탁구장에서 라켓에 공이 맞는 느낌이 좋아 탁구에 푹 빠지게 됐다. 이후 광산구 송정초로 진학해 이동현 코치와 호흡을 맞추며 실력을 키웠다. 5학년 때 출전했던 ‘제17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는 탁구 남자 단식 청각장애 초·중등부 우승을 차지하며 장애인 체육에 이름을 알리

기도 했다.

청각장애라는 제약은 경기를 치르는데 어려가지 어려움이 있다. 뇌와 귀를 연결시키는 ‘인공와우’ 장치를 착용하기 때문에 비장애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기계음이 섞여 들리기 때문에 집중력이 분산된다.

또 운동 중 땀이 잘 때마다 인공와우를 뺄 땀을 닦아줘야 하기 때문에 장애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경기 중 불리함도 적지 않다.

하지만 김민찬은 “장애인 선수들에게 장애인도 비장애인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평일 오후 4시 30분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공장 탁구장으로 향해 밤 9시까지 연습에 매진한다.

김민찬의 아버지 김동욱씨는 “장애인이라는 점에서 민찬이가 다른 부분에서는 배려대상이 될 수 있지만 탁구에 있어서 만큼은 학생들도 인정해준다. 옆 반에서 탁구대표선수라며 보러오



선운중

기도 한다고 전해 들었다”고 설명했다.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이 롤모델이라는 김민찬은 장애인 국가대표라는 꿈을 이룬 뒤 비장애인 국가대표에도 도전할 계획이다.

김민찬은 “파리올림픽에 출전했던 오른팔 없는 탁구 선수 브루나 알렉산드르(브라질)처럼 비장애인 국가대표가 되고 싶다. 장애인 선수들에게 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존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양산 글·사진=김다인 기자 kdi@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교향악단 395회 정기연주회
'형제들'

일시 : 2025-05-30(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41



GAC 공모전시
사모곡 비우면서 채우는... : 류현자 개인전

일시 : 2025-5-2(금) ~ 2025-6-1(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